

리딩컴퍼니(Leading Company) 육성 통해 ESCO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97년도에 ESCO자금 추천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신기석 팀장이 공단의 ESCO팀장으로 새로 부임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자금 운용처 소속이 된 ESCO팀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기존의 업무와 자금 관련 업무가 더해져 매우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신 팀장으로부터 ESCO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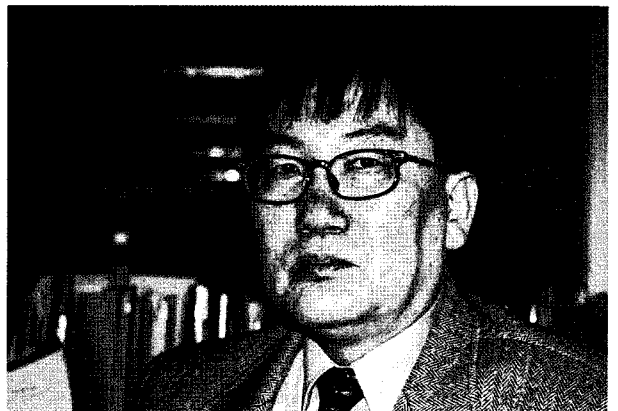
현재 ESCO사업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ESCO제도 도입 초창기 자금 소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는 ESCO도 많지 않았고 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자금인출도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ESCO팀장으로 와 보니 지금은 자금도 풍부해졌고 ESCO 등록업체도 160여개사로 늘어나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ESCO사업은 이렇게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고 내용 또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제도도 정착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SCO사업은 이제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ESCO사업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면?

ESCO사업은 향후 2~3년 후가 고비라는 생각입니다. ESCO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랄 수 있는 부채 증가문제로 인하여 ESCO들의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배분제'에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성과보증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연말이면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성과보증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고 성과배분제와 혼합/절충제, 성과보증제라는 3가지 유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올해는 우수ESCO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SCO중에서도 기술력이 우수한 리딩컴퍼니(Leading



기계공학을 전공한 신기석 팀장은 84년 연수원 전임강사 요원으로 입사하여 주로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도 오랫동안 다루어왔다. ESCO사업과 관련해서는 97년도에 자금추천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Company)를 육성, 공단이 인증해줌으로써 ESCO들의 영업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 또한 연내에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소비자, 제조업체, 판매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기를 바꿔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잘 활용하면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pecial Interview

ESCO사업은 향후 2~3년 후가 고비라는 생각입니다. ESCO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채증가문제로 인하여 ESCO들의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보상제'에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성과보증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행 ESCO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바람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ESCO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ESCO, 제조업을 병행하는 ESCO가 많은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업ESCO는 12개사에 불과한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ESCO사업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1회성 사업만을 추진하다든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살까아먹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시장을 더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ESCO 상호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ESCO협회의 역량과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져야겠지요.

조직개편에 따른 ESCO팀의 업무량은 어떠한가?

자금추천 등 서류 작성만해도 연간 700여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기존제도관리에, 자금추천에, 고효율유도전동기 시범사업까지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은 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될 것이고... 그래서 담당자들이 편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